**노숙자가 된 이유**

**여기는 서울역 역사,

저녁이 밤으로 넘어가는 가슴이 따듯해지는 시각에
소주에 아딸딸하게 취한 노숙자들이군데 군데 모여 이야기 꽃(?)을 피운다.

인자한 얼굴에 흰머리가 덤성덩성하게 난 80대 대장 노숙자가
빙 둘러앉은 대원중 새파랗게 젊은 20대 젊은이에게 묻는다.

"대 장"왈
자네는 어쩌다 노숙자가 되었는가...????

"20대" 왈
:(머쓱한 표정으로) 마누라에게 반찬 투정을 하다가 쫓겨났습니다.
옆에 있던 30대가 호사스럽다는 듯 눈을 흘기더니한마디 툭 던진다.

"30대"왈
나는 밥이 질다고 투정하다가 쫓겨났는데 자네는 나보다 더 심했군!!!!
이 말은 들은 40대가 한심하다는 표정으로 한마디를 거든다.

"40대"왈
그 정도면 자네들은 행복했던거여...!!
나는 묻는 말에 늦게 대답했다고 쫓겨났어...!!
그러자 듣고있던 50대가 한숨을 폭~ 쉬며 하소연한다.

"50대"왈
내는 마누라가 마실갔다 오기래 "어데다녀 오시니겨...?" 하고
그것도 두 손으로 맞잡이해 공손하게 이바구했는건데
물어봤다꼬... 집안 분위기 망친다꼬쫓겨났는기라.
하고 말하자 옆에있던60대 노숙자가 혀를 끌끌차며 눈을 스르르 감고 말한다.

"60대"왈
허허... 어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나?자네도 보기보담은 용감한데가 있구면....
나는 소파에 같이 앉아 TV를 보았다는 이유로쫓겨났다네...!!
소파 아래에 앉지않고 같이 앉으면 동급으로 취급된다나

어쩐다나 하면서...
60대가 눈물을 찔끔거리자,70대노숙자가 한마디 거든다.

"70대"왈
휴~.... 옛날의 내 청춘이 그립구만...
나는 할망구하고 눈 마주쳤다고 쫓겨났다네...
휴....!! 하고 넉두리 하자 잠자코 듣고 있던 90대 노숙자 왈

"90대"왈
그래도... 자네들, 아직은행복한게야....
나는 할망구가 빨리 죽지 않는다고 나가서 죽으라고 쫓아냈다네...!!**